종단 입법기구 전문지식 함양

중앙종회,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서 연수
총무원장스님 '민족문화수호' 특별강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해 12월27일과 28일 이틀동안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중앙종회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중앙종회의원 76명 가운데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는 종단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을 갖추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의 '불교문화유산을 되살리는 길-불교문화재콘텐츠 활용' 특별강의,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종단의 방침' 특별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중앙종회의원의 입법 전문성을 함양하고 원활한 종회 운영을 위해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의 '중앙종회 회의 운영법' 강의, 정병택 중앙종회 법무전문위원의 '종법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의, 김정호 중앙종회 사무행정팀장의 '종법안 입안 실무' 강의 등이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종단의 방침' 특별강연을 통해 종단과 중앙종회가 함께해야 쇄신할 수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뜻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우리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종권과 사찰불사에 집착하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민주화 대열에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불교는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1962년 가톨릭이 회개와 쇄신을 외친 '아조르나멘토'를 소개하며 "정부 예산으로 쉽게 불사하며 신도를 잃을 것이 아니라 스님과 신도가 교감하며 십시일반으로 불사하면 하나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불교가 쇄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단 아래 긴 호흡으로 불교가 하나로 뭉쳐 쇄신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불교문화유산을 되살리는 길-불교문화재콘텐츠 활용' 특별강의를 통해 현 시대상황과 불교문화유산의 가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등을 살펴본 뒤 "새로운 시대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불교문화를 진흥할 전문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종회의원 연수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정병택 중앙종회 법무전문위원은 종법령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주=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외국인 템플스테이 5개국어 사이트 개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스님)이 템플스테이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홈페이지(http://eng.templestay.com)을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는 기존의 영문사이트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총 5개 국어로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트에는 외국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정보와 최신프로그램, 일정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원스톱 예약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이외에 템플스테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달로그'와 'Find Your Templestay' 메뉴를 신설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웹2.0 표준에 맞춰 제작된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PC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각광받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공유나 링크도 가능하다. 한편, 불교문화사업단은 내년 1월 중 외국인을 위한 아이폰 전용 템플스테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신년특집호 52면 주요지면 안내

대주제 : 이천년 한국불교, 세계로

성효스님의 신년 축화 5면

특집1 주요종단 지도자 신년사 7면
특집2 불교단체 지도자 신년사 8면
특집3 불교신문 신춘문예 당선작품 전재 및 당선자 소감과 심사평 35 38 39 40 46 47면

특별인터뷰/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 10면

기획1 한국불교 정체성 어떻게 살릴까 12면
기획2 한국불교 세계화,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면
기획3 변화하는 한국불교/승가교육 현장 14면
기획4 변화하는 한국불교/재가수행 현장 15면
기획5 대장경 조성 1000년을 돌아본다 19면
기획6 경전으로 보는 토끼 이야기 33면
기획7 토끼띠 불자연예인은 누구? 34면
기획8 사찰음식 세계로 50 · 51면

원단취재1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 20 · 21면
원단취재2 세계화 소통하는 사람들 22 · 23면
원단취재3 최전방 군법당을 가다 24면

군화를 신고 사찰에 들어와 난동 부렸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조계사, 보수단체 법당난입 강력규탄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는 지난해 12월26일 '불교사랑愛날' 법회를 열고 고엽제전우회 등 일부 보수단체의 경내 대웅전 난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계사 부주지 도문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종단이 민족문화수호를 위해 100일간 108배를 하고 있는데 관변 단체들이 군화를 신고 사찰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고 "불자들도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계사는 '민족문화 외면 민주주의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경내에 난입한 보수단체의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도 조계사 난입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강조하며 불심(佛心) 달래기에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월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종교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며,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 경내에서 발생한 것은 심각성이 더하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NGO 공모사업 기관에 기금전달
아름다운동행, 8개 단체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2011년 NGO단체 공모사업 '저소득가정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NGO단체와 복지관에 대한 지원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자승스님은 지난해 12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8개 기관에 선정 증서 및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선정된 사단법인 강화여성의 전화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각 1000만원이 전달됐으며, 6개 기관에는 500만원이 지원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명상 묘미 즐겨요"
'무소유 카페' 개원
광주 지장왕사

사회적으로 일상에서 명상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심 속의 명상센터, 참선원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명상음악카페가 지난 12월24일 문을 열었다.

보성 대원사 광주 포교당 지장왕사(주지 현장스님)가 마련한 '무소유 명상음악카페'가 그것. 이 카페는 현장스님이 지역 불자와 일반인에게 불교를 통한 명상음악의 세계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명상음악카페는 차훈 명상, 춤 테라피, 임산부를 위한 태교 명상 등 다채로운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이 휴식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명상음악카페는 오는 1월 태교명상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 전남지사=진재훈 기자

"한국 개신교, 종교갈등 원인 제공하고 있다"
신재식 호남신학대교수 주장

한국 개신교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근본적인 종교 갈등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재식 호남신학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1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은 한국 교회는 안티 기독교라는 문화현상까지 불러왔다"면서 "교세의 쇠퇴에 직면한 개신교는 공격적인 선교를 하며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고 현대의 다원종교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교수는 종교 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해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신앙태도와 개교회주의가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은 내집단에서는 종교적 확산에 효과적이지만 외집단에서는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반사회적 태도와 관계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교 초기에 개신교의 정체성을 십자가가 달린 예배당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신묘년 불기2555(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소서"

선원장 미 산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암 상도선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79-60 ☎ (02)815-3391 www.sangdomc.com